

LS산전, LED 조명기기 “첫선”

LS산전이 처음으로 LED(Light Emitting Diodes) 조명기기 및 관련부품을 공개했다.

6월22일부터 개최된 <LED Expo & OLED Expo 2010>에서 LED 및 OLED(Organic Light Emitting Diode) 부품소재들이 대거 출품됐다.

LS산전은 그린 비즈니스를 강화하기 위해 진출한 LED 사업부문에서 실내용 16종 및 실외용 8종, 광고용 8종의 LED 조명기기 및 관련부품 등을 전시함으로써 본격적인 LED조명 사업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.



아울러 LED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금호전기, 루멘스, 요코가와 등 중견기업 역시 다양한 LED 조명기기과 솔루션을 선보여 주목받았다.

이밖에 다양한 LED 및 OLED 관련부품도 공개됐다.

러시아 Monocrystal은 6인치 LED 사파이어 잉곳과 웨이퍼를 선보이는 동시에 사파이어 웨이퍼 위에 실리콘 웨이퍼를 결정시킨 제품을 선보였다.

일본 Kuramoto는 난반사를 감축할 수 있는 LED 및 LCD(Liquid Crystal Display)용 AG글래스와 OLED용 평활 ITO(산화인듐주석)막 글래스 제품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했다.

Kuramoto 관계자는 “AG글래스는 난반사가 강한 LED조명 및 디스플레이 제품에 적용하면 외광반사를 감소시켜 선명도를 더 높일 수 있다”며 “현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LED 이외에 다른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성장이 기대된다”고 전했다.

<LED Expo & OLED Expo 2010>은 11개국, 270여사가 참여한 가운데 6월22일부터 25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된다. <이명주 기자>

<화학저널 2010/06/23>